



차이나

CHINA Industrial Policy Brief

산업정책 브리프



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

전화 : 86-10-6505-2671/3

이메일 : beijingk@kita.net

1 中, 미국 대상 통상·수출통제 등 5개 대응조치 발표

■ 중국 상무부는 8월 5일 미국의 對中 제재 및 규제 강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인증·무역 안보조사·수출통제 등을 포함한 5개 대응조치를 발표

- 이번 조치는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, 미국 연방통신위원회(FCC) 규제, 신장(新疆) 관련 제재 등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, 국가안보 및 국가이익 보호를 위한 대응조치로 평가됨

■ 주요 내용

① 미국 인증기관의 CCC 인증 사후 공장심사 위탁 중단

- * 공장심사(factory inspection) : CCC 인증 취득 이후 인증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증기관이 제조공장의 품질관리체계, 생산설비 및 제품의 인증 적합성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후관리 절차
-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(CNCA)는 중국 강제성제품인증(CCC) 지정 인증기관이 미국 소재 인증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던 인증 후 공장 사후심사를 즉시 중단한다고 발표
- 이에 따라 미국 인증기관은 중국 CCC 인증의 사후 공장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전망

② 외국 시스템 소프트웨어 탑재 사무기기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 착수

- 상무부는 외국에서 개발·시험·유지 관리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(드라이버 및 임베디드 소프트웨어)가 탑재된 수입 프린터·복합기 등 사무용 장비를 대상으로 조사 개시
- 주요 조사사항은 ▲수입 현황, ▲국가안보 영향, ▲국내 산업 및 공급능력, ▲해외 의존도 ▲외국 정부 정책 영향 등이며 조사기간은 원칙적으로 12개월(필요 시 연장 가능)

③ 미국 시험·인증기업에 대한 반외국제재 조치 시행

-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대중 규제를 지원한 미국 시험·인증기업 Compliance Testing

LLC를 <반외국제재법>에 따른 반제재 대상에 포함

- 중국 내 조직 및 개인의 해당 기업과의 거래 및 협력 활동을 금지

④ 미국 기업·기관 6곳에 대한 제재

- 미국의 이른바 '강제노동' 관련 대중 제재에 협조한 ▲Applied DNA Sciences, ▲Stratum Reservoir, ▲Altana Technologies, ▲Responsible Business Alliance(RBA), ▲Verité Group, ▲Human Rights in China(HRIC)를 반제재 명단에 추가
- 대상 기관과의 거래·협력 활동을 전면 금지

⑤ 미국 대상 드론 관련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강화

- <수출통제법> 및 <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조례>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되는 드론 및 핵심 부품, 관련 기술에 대해 건별 심사를 엄격히 시행
- 대미 수출에는 기존 허가 간소화(라이선스 편의) 제도를 적용하지 않음

■ 중국 정부 공식 입장

- (상무부) 미국의 대중 규제와 제재가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과 국가 주권·안보·발전이익을 침해하고 있어 <반외국제재법>, <수출통제법> 및 <대외무역법>에 근거하여 필요한 대응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

■ 시사점

- 이번 조치는 인증, 무역안보 조사, 경제제재, 수출통제 등을 포괄하는 중국의 대미 대응조치로, 향후 미·중 간 통상 및 기술 분야의 규제 조치가 지속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
- 특히 외국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수입 사무기기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가 개시됨에 따라, 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에 따라 관련 ICT 장비 및 소프트웨어 분야로 규제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
- 미국 인증기관의 CCC 인증 사후 공장심사 위탁이 중단됨에 따라, 관련 인증체계의 운영 동향과 기업의 인증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

- 드론 관련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대미 수출통제 강화에 따라, 향후 전략산업 분야의 수출통제 정책 및 규제 동향을 지속 주시해야 함
- 우리 기업은 중국의 통상·산업정책 및 수출통제 제도 변화가 공급망, 인증 절차 및 대중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, 관련 규제 변화에 대비한 내부 대응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

자료원 : 상무부

2 中, 화장품 등록·신고 관리 최적화 조치 발표, 심사절차 간소화

■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 심사·허가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7월 29일 <화장품 등록 조치(70호 공고)>를 발표

- 해외 화장품 신제품의 중국 최초·동시 출시 지원
 - 해외 화장품 신제품이 중국에서 최초 출시되거나 중국과 해외에서 동시 출시되는 경우, 등록·신고 시 해외 판매증명서 제출을 면제
 - 등록인(신고인)은 중국 최초 출시 여부에 대한 서약서만 제출하면 되고, 생산국 판매용 포장은 실제 제품 대신 디자인 시안으로도 제출 가능
- 일부 화장품의 동물시험 자료 제출 면제 확대
 - 특수화장품 중 △퍼머 제품, △비산화형 염모제, △물리적 커버 효과만을 갖는 기미·미백 제품과 신원료를 사용한 일반화장품(아동용 제외)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독성학 시험보고서 제출을 면제
 - 적용 대상은 생산기업이 소재 국가(지역) 정부 주관부처가 발급한 생산품질관리체계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, 제품 안전성 위험평가 결과를 통해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에 한함
 -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향후 기술지침을 통해 면제 대상 품목 범위를 조정·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
- 원료 안전정보 제출의무 완화
 - 화장품 및 치약 등록·신고 시 원료 안전정보 파일과 원료 신고 코드 기재를 폐지하고 원료 제조업체명만 기재하도록 변경

- 〈화장품 안전기술규범〉 등에서 품질규격을 요구하는 원료는 품질규격 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, 기타 관련 자료는 기업이 자체 보관
- 기존 등록·신고 제품의 원료 제조업체 또는 품질규격이 추가·변경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 갱신 또는 변경 신청 필요

• 유사 성분 제품의 안전성 자료 공동 활용 허용

- 동일 등록인이 동일 브랜드의 유사 성분 제품을 등록·신고하는 경우, 대표 제품 1개에 대해서만 미생물·이화학시험, 독성학시험 및 인체 안전성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
- 나머지 제품은 유사 성분 설명자료와 시험자료 공동 활용의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면 기존 시험자료 활용 가능
- 생산공장이 다른 경우에는 미생물 및 물리·화학시험은 각각 실시해야 하나, 독성시험과 인체 안전성 시험은 공동 활용 가능

• 생산공장 변경 시 제출자료 간소화

- 기존 등록·신고 제품이 해외 생산에서 중국 생산으로 전환하거나, 반대로 중국 생산에서 해외 생산으로 변경 또는 생산공장을 추가하는 경우, 일정 요건 충족 시 기존 독성시험, 인체 안전성 시험, 안전성 평가 및 효능평가 자료를 공동 활용 가능
- 다만 미생물 및 물리·화학시험은 새롭게 실시해야 하며 기존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함께 제출해야 함

• 효능평가 시험방법 인정 범위 확대

- 미백, 자외선차단, 탈모방지 기능을 제외한 기타 효능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업계표준, 국제표준, 기술 가이드라인 또는 자체 검증시험법 등을 활용한 효능평가를 허용

• 유사 성분 제품의 효능평가 자료 공동 활용 허용

- 동일 브랜드의 유사 성분 제품은 대표 제품의 효능평가 시험자료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
- 기업은 등가성 평가를 통해 시험자료 활용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며, 관련 자료는 자체 보관
- 미백, 자외선차단, 탈모방지 제품은 제품 등록 시 효능평가 자료와 유사 성분 설명자료를 제출해야 함

- 수입 화장품의 중국 내 책임자 변경 절차 간소화

- 제품의 중국 내 책임자 변경 시 기존 책임자의 동의서나 법원 판결문 제출 의무를 폐지, 대신 △신규 책임자 위임장 및 공증서, △변경 대상 제품 목록, △기존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승계한다는 약약서만 제출하면 됨

■ 이번 조치는 화장품 등록·신고 절차를 전반적으로 간소화하고 시험자료 공동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제품 출시 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됨

- 특히 해외 신제품의 중국 동시 출시 지원, 동물시험 자료 제출 면제 확대, 원료 안전정보 제출 간소화 등을 통해 해외 기업의 중국 시장 진입과 신제품 출시가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됨
- 또한 동일 브랜드 유사 처방 제품과 생산공장 변경 제품에 대한 시험자료 공동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시험 비용과 행정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

자료원 : 국가약품감독관리국

3 중국인민은행, 2026년 하반기 완화된 통화정책 지속 추진

■ 중국인민은행은 7월 15일 국무원 정례브리핑에서 상반기 유동성 공급 확대 및 구조적 통화정책을 통한 실물경제 지원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하고, 하반기에도 적정 수준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을 밝힘

- 중점 분야 금융지원 확대 : 시장 수요에 따라 정책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, 내수 확대, 과학기술 혁신, 중소·영세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
- 위안화 환율 안정 유지 : 시장 수급을 기반으로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 균형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침
- 금융·채권시장 안정 지원
 - 자본시장 안정 지원 정책을 지속 시행하는 한편, 과학기술기업 및 민영기업의 채권 발행을 지원하고 채권시장 제도 및 인프라를 지속 개선할 계획

자료원 : 신화사

4 中, 상반기 항만 컨테이너 처리량 5.9% 증가

- (누계) 중국 교통운수부가 7월 22일 발표한 〈2026년 1~6월 항만 화물·컨테이너 처리량 통계〉에 따르면, 전국 항만 화물처리량은 90억 7,385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2.0% 증가했으며, 같은 기간 컨테이너 처리량은 1억 8,292만 TEU로 5.9% 증가함
- 연해항 화물처리량은 58억 6,659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3.0% 증가했으며, 컨테이너 처리량은 1억 6,105만 TEU로 5.9% 증가
- 1~6월 기준 컨테이너 처리량이 가장 많은 항만은 상하이항으로 2,874만 TEU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대비 6.2% 증가했고, 닝보·저우산항(2,290만 TEU), 선전항(1,856만 TEU), 칭다오항(1,756만 TEU)이 뒤를 이음
- 2026년 상반기 텐진항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전년 동기대비 6% 이상 증가하며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
- 텐진항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직항노선을 개설하고, 40여 개 해상철도 복합운송 노선을 운영 하는 한편, 중유럽·중앙아시아 화물열차 운행을 확대하며 국제물류 기능을 강화함
- 양푸항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194만 TEU로 전년 동기대비 49.9% 증가
- 하이난 자유무역항 정책과 양푸 국제컨테이너부두 확장사업에 힘입어 물동량이 증가했으며, 물류시설 확충 완료 시 연간 처리능력은 500만 TEU로 확대될 전망
- 반면, 베이부만항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전년 동기대비 4.0% 감소한 457만 TEU를 기록해 주요 항만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세를 나타냄

〈2026년 1~6월 중국 주요 항만 컨테이너 처리량〉

(단위: 만 TEU, 전년 동기대비)

순위	항만	처리량	증감률	순위	항만	처리량	증감률
1	상하이항(上海港)	2,874	6.2%	10	르자오항(日照港)	396	8.2%
2	닝보·저우산항(宁波舟山港)	2,290	8.8%	11	렌원강항(连云港)	340	0.1%
3	선전항(深圳港)	1,856	7.7%	12	잉커우항(营口港)	306	5.8%
4	칭다오항(青岛港)	1,756	7.2%	13	옌타이항(烟台港)	304	8.7%
5	광저우항(广州港)	1,403	2.9%	14	다롄항(大连港)	273	4.3%
6	텐진항(天津港)	1,300	6.1%	15	난통항(南通港)	213	10.0%
7	샤먼항(厦门港)	603	1.6%	16	양푸항(洋浦港)	194	49.9%
8	쑤저우항(苏州港)	520	3.2%	17	푸저우항(福州港)	187	2.3%
9	베이부만항(北部湾港)	457	△4.0%	18	탕산항(唐山港)	180	14.4%

* 양푸항은 중국 교통운수부에서 별도 발표되지 않아, 양푸교통운수국의 2026년 상반기 운영실적을 사용

5 中, 7월 외국산 게임 4종 서비스 허가…한국 게임·IP 2종 포함

■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7월 23일 외국산 온라인게임 4종에 대한 서비스 허가 명단을 발표

- 이번에 허가된 게임 가운데 한국 게임사 또는 한국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게임은 엔씨소프트와 중국 성취게임즈의 공동 개발작 ▲‘아이온: 클래식’, 그라비티의 ‘라그나로크’ IP를 활용한 ▲‘라그나로크M: 영원한 사랑2’ 등 2종이 포함됨
- 이에 따라 2026년 1~7월 중국에서 허가된 외국산 게임 중 한국 게임사·IP 관련 게임은 총 9종으로 집계됨
- 중국은 게임 서비스 허가제도를 통해 자국 및 외국 게임의 시장 진입을 관리하고 있으며, 외국 게임은 통상 중국 현지 출판·운영사를 통해 서비스 허가를 취득한 후 시장에 출시됨
- 최근 중국 서비스 허가를 획득한 한국 게임은 완성 게임의 직접 수출보다 한국 기업의 IP 제공 및 개발 역량과 중국 기업의 현지 개발·운영을 결합하는 방식이 확대되는 추세임
- 한편, 2026년 1~7월 중국이 발급한 외국산 게임 서비스 허가는 총 36종으로, 전년 동기(60종) 대비 약 40% 감소함

[중국 내 서비스 허가 획득 한국게임(9종)]

* 2026년 1월 1일~7월 22일 기준

No.	허가일	개발사	게임명(한글)	게임명(중문)	사진
1	7월 22일	엔씨소프트(韓) 성취게임즈(中)	아이온: 클래식	永恒之塔: 经典	
2	7월 22일	그라비티(韓) XD(中)	라그나로크M: 영원한 사랑2	仙境传说: 守护永恒的爱2	
3	6월 29일	매드엔진·위메이드	나이트 크로우	夜鸦	
4	5월 25일	웹젠	뮤: 뉴 에라	奇迹: 新纪元	
5	4월 28일	그라비티	라그나로크: 제신전장	仙境传说: 诸神战场	

6	4월 28일	엠바크 스튜디오	아크 레이더스	弧光猎人	
7	3월 24일	넥슨·소노브이	샤이아: 분쟁	神泣：纷争	
8	2월 26일	넥슨·소노브이	샤이아: 빛과 어둠	神泣：光与暗	
9	1월 23일	엑토즈소프트	라테일: 앨리스의 경계	彩虹岛： 爱丽丝之境	

자료원 : 국가신문출판서